

# 따뜻하게 동행하는 축제 한마당

### 전북대, 오늘 지역과 소통하는 대동제 개최 플리마켓·취업 지원·창업 부스 등도 운영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학생 등 구성원과 지역이 따뜻하게 동행하는 축제 한마당을 연다. 대동제가 오늘 개막해 3일간 대운동장을 비롯한 대학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대동제에서는 특히 학생지원 부스를 축제 기간 내내 운영해 눈길을 끈다.

전북대 구정문 앞림의 거리에는 창업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플리마켓'이 운영되고, 취업의 취업상담이나 모의 면접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취업지원존'도 운영돼 모두가 함께하는 대동제의 의미를 더한다.

또한 '게임존'과 '휴식존'이 설치돼 다양한 축제를 즐기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고, 축구와 농구

등의 체육대회도 진행된다. 특히 주류 판매 금지에 따라 소운 동장 일원에 다양한 푸드트럭이 설치돼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대동제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무대 공연. 학생들의 숨겨진 끼를 발산하는 대동가요제가 29일, 댄스 경연대회가 30일 저녁 무대를 갖는다.

또한 초대가수의 무대도 3일 내내 이어진다. 29일 투비과 밴을 시작으로 30일 퍼플과 매드클라운, 그리고 31일에는 406호 프로젝트와 형돈이와 대준이, 마미루, 흥진영 등이 마지막 날 무대를 장식한다.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대동제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더해졌다. 전북대는 대학 본부와 총학생회, 덕진경찰



지난해 열린 전북대학교 대동제 공연 사진.

서, 덕진소방서, 전북대 응급센터 등의 유관 기관이 함께 안전관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고, 총학생회와 대학

본부 역시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야간 등에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 “진로선택 고민말고 체험하세요”

### 전북대, 전공체험·학과탐방 실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진로선택을 고민하는 고교생들에게 다양한 전공을 체험하도록 돕고,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및 학과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전공체험 및 학과탐방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7월 중 수험생 및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전공체험 및 학과탐방 행사를 실시해 온 전북대는 올해는 예년보다 행사를 앞당겨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대는 이 기간 동안 대내·외 고교생 및 교사·학부모 등 1만 여명을 초청, 전공체험·학과탐방과 함께 학생부종합전형 등을 비롯한 입시상담, 대학 교직원(교수 및 입시담당관)과 고교 교사 간 정보교류 및 토론 등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정보제공의 자리를 제공한다.



이번 전공체험 및 학과탐방 행사에는 전북대 모든 학부(과)가 참여하며, 도내 대학 및 전국 거점국립대학들도 입시상담 행사에 참여해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홍철운 입학본부장은 “교육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진로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하는 행사이니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한 이번 행사를 통해 참여 고교생, 교사,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사학기관 행정·법인실장 연수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8일 전주 왕의 지밀에서 사립학교 행정실장 및 법인실장 130여 명을 대상으로 전북교육 정책 방향 이해와 직무관련 전문성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도교육청 관할 사학기관 행정실장과 법인실장의 직무 능력을 배양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연수과정을 통해 관리자로서의 역량 강화, 정책 공유와 참여로 교육청과 학교 간 행정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사학 운영 실무에 대한 이해와 책무성 함양 돕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립중 49교, 사립고 68교, 사립특수학교 4교 등 총 121개교 사립학교 행정실장(중·고 겸임 5교 제외)과 학교 법인 법인실(국)장 11명이 참여했다.

도교육청 정병익 부교육감이 “전북교육 정책 방향 특강과 전북대 평생교육원 임진옥 교사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에너지 충전법’, 최선영 노무사의 ‘노동관계법 및 노무관리 특강’이 이어졌으며, 사립학교 발전 방안 모색 및 토의 등 사학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노동관계법 및 노무관리 교육을 통해 사학기관 행정실장 및 법인실장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유도해 더욱 신뢰받는 사학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내진업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전북도교육청이 내진업무 담당자들의 역량강화에 나섰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나흘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내진담당자와 내진업무추진 주무관 등 57명을 대상으로 ‘내진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진 및 재난안전과 내진보강사업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을 통해 예산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첫날은 (주)건설방재기술연구원 고명환 건축구조기술사가 ‘지진, 재난안전 이해’를 주제로 정밀점검과 안전진단, 내진설계와 내진성능평가 등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제이엔케이 전문성 대표이사사는 내진보강방법 및 시공사례 강의를 통해 실제 학교현장에서 적용되는 내진공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오늘은 학교시설재난공제회 황은아·김재영 안전관리부장이 각각 내진보강 사업 실무와 내진보강정책 및 방향에 대한 강의를 이어간다.

마지막으로 30~31일에는 지난 2017년 11월 규모 5.4의 지진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학교를 방문해 실제 학교현장에서 진행되는 내진보강사업 내용을 견학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 지진 및 재난에 적극 대비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재학생 6명이 '전주문화재 야행(夜行) 프로그램 문화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 상상을 현실로! 문화재 활용가의 탄생

### 전주대 학생들, '전주문화재 야행' 공모전서 대상 수상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재학생 6명이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전주문화재 야행(夜行) 프로그램 문화탄(문화재 활용가의 탄생)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1박 2일간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치러진 이번 공모전은 전라감영, 풍남문, 전통성당, 경기전, 오목대 등 전주지역 문화재 활용방안과 지역 특화형 콘텐츠 개발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제시된 가운데 6개 대학만이 본선에 진출했다. 특히,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와 정명

기(팀장), 김영은, 천태인, 오지성, 이준희, 박솔지 학생팀(이하 역사문화콘텐츠화과팀)은 각 연령대의 취향과 교육 효과를 고려한 지역 문화 행사 및 콘텐츠를 기획하여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으며 대상을 받게 됐다.

역사문화콘텐츠학과팀은 10·20대 중심의 한옥마을 관광문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중·장년 계층을 위한 문화행사의 추진, 2020년 문을 열게 될 전라감영을 활용해 초·중학생이 조선 시대 재관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 등을 제안했다.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팀은 “평상시 문화재 활용방안과 역사 유적지

와 유물의 콘텐츠화에 관심이 많았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그동안의 고민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프로그램과 관광콘텐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야행 추진단 관계자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 짧은 기획자들이 모여 항상 도전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전주형 관광콘텐츠 개발을 끌어내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새롭게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은 문화재 야행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간관람, 체험, 공연, 전시 등을 아간에 즐기는 행사로 문화재청이 주관하고 있으며 전주 문화재 야행은 2018년도 전국 최우수 야행으로 선정됐다. /장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응급구조과, 사랑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서약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지) 응급구조과 1학년 학생들이 지난 27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사랑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서약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주비전대 응급구조과는 2012년부터 1년의 죽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생명을 선물하는 장기기증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매년 1학년 전체 학생들이 사랑의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있다.

응급구조과 윤희환 교수는 “사랑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고통 받는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사람나눔 실천이며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미래의 응급구조사로서 사랑을 다하는 일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